불교, '자비'로 병마와 싸우다

종단 · 사찰 성금 기부 이어져
조계사 취약계층 생필품 전달
전국 사암련, 사찰 성금 기부
아름다운동행에 성금 답지 중
태고종 · 천태종 자비행 펼쳐
국가재난 극복 모범사례 평가

신성민 · 노덕현 · 윤호섭 · 하성미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소외계층이다. 이들은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없고, 복지관에서 그간 받았던 복지 서비스 역시 축소됐다. 소외계층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실한 지금, 불교계가 자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간호사를 위해 격려금을 전달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3월 2일 동국대 경주병원 회의실에서 '동국대 경주병원 코로나19 확산방지 격려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전국비구니회 경북지회장 철우 스님, 총무 무구 스님, 재무 법운 스님과 이동석 병원장, 박영근 사무국장, 김현정 간호부장, 서찬 총괄지원팀장, 조희군 원무팀장이 참석했다.

전달식에 앞서 철우 스님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동국대경주병원 관계자와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전국비구니회와 회장이신 본각 스님의 뜻을 대신 전하고자 한다"며 "전국비구니회가 단초가 되어 전국의 불자들이 응원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석 동국대 경주병원장은 "전국비구니회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비상 근무로 인력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비구니회는 3월 5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3000만원을 조계종 총무원에 전달했다. 성금은 제12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소임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를 하루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다"면서 "선제적 대응으로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종단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전 국가가 비상시국인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국 사찰들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서 "전국비구니회에서 뜻을 모아주셔서 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현정 · 부회장 상덕 · 비구니승가연구소장 수경 · 사찰요리연구소장 선재 · 총무부장 보련 스님이 참석했다.

조계종은 현재 중앙종무기관 내에 '감염병 비상대응본부'를 구성, 본사 및 말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국내 지역을 돕기 위해 (재)아름다운동행을 중심으로 4월 30일까지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현재까지는 대구 · 경북지역에 1차적으로 감로수 20만개를 지원하고, 모금액에 따른 추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종단들 대구 · 경북 등에 기부행

불교 주요 종단들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태고종(총무원장 호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구 · 경북에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지회를 통해 전달된 방역 성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기원하며 태고종 종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이다.

이날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퇴치돼 국민생활이 안정되길 바란다"면서 "확진자가 많은 대구 · 경북 지역민들의 고통이 큰 만큼 적으나마 코로나19 극복과 쾌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3월 4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후원금 5천만원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천태종은 이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책의 일환으로 전달식은 생략한 채 재해구호협회에 기금을 송금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다.

천태종 사단법인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도웅, 천태종 사회부장)는 3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상담원 400여 명과 인천공항 검역소 방역담당자 500여 명을 위해 비타민 음료 3000병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나누며하나되기는 3.1운동 101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위해 광복회를 방문, 마스크 100개와 손소독제 550개, 물티슈 500개를 전달했다.

나누며하나되기는 지난 2월 9일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급약품 등을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 이주노동자 등에게 전달한 바 있다.

주요 사찰들 생필품 · 성금 전달

전국 주요 사찰들도 기부로 코로나 19와 맞서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3월 3일 양산시청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피해극복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통도사는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성금은 사중 대중스님들이 함께 십시일반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식에는 통도사 총무국장 종현 스님, 기획국장 성구 스님, 교무국장 인경 스님, 재무국장 현담 스님 및 김일권 양산시장이 참석했다.



통도사는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모두가 힘을 모았다"며 "마스크와 방역비용에 활용돼 시민들이 안전하고 질병에서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시관 내 대중공공시설 종사자 및 노약자를 위한 활동으로 비용이 부족한 시기였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통도사에서 방역지원금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와 조계사 행복나눔가피봉사단은 2월 28일 조계사 불교대학 1층 로비에서 급식 취약계층에 라면과 국수, 생수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조계사 행복나눔가피봉사단은 매주 종로구 관내서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락 배달 등이 어려워지자 종로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한 것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김문주 가피봉사단장, 김진여심 가피봉사단 부단장, 김진이 종로구청 희망복지지원팀장, 조은실 종로1 · 2 · 3 · 4가 주민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가피봉사단이 준비한 생필품은 생수 500㎖ 4000개, 국수 12㎏ 200박스, 라면 5개들이 500박스, 세면도구 세트 500개 등으로, 서울 종로구 17개동, 5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 조계사는 어디든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을 때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8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주지 혜솔)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써달라며 성금 4,157만원을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의 선방 대중스님들이 코로나19 조기종식을 기원하며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예방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마음선원 측은 빠른 기금 집행을 위해 아름다운동행 계좌로 전달식 없이 바로 성금을 전달했다.

지역불교계, 코로나19 성금 답지

경상권 불교단체들의 코로나19 성금 기부도 이어졌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2월 28일 부산시청 접견실에서 '코로나19 조기극복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이날 성금 5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구입 및 예방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달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 상임부회장 자관 스님, 진광 정사, 오거돈 부산시장이 참석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은 "어느 때보다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모두가 함께 관리하고 조심하며 배려해야 한다. 부산과 경남 불교 사찰들은 앞으로도 힘을 보탤 것이다"고 말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불교계의 행보가 부산 시민에게 큰 힘이 된다"며 "불교계의 후원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자 기업가이자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인 박수관 대표이사가 코로나 조기 종식을 기원하며 성금을 전달했다.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YC-TEC 대표이사)은 2월 27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억을 부산시에 전달했다.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산지역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월도)는 3월 3일 창원시청에서 '코로나19조기극복 기원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창원불교연합회 회장 월도 스님,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 진해 천웅사 성우 스님, 수선정사 성일 스님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이 동참했다.

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월도 스님은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도 최근 코로나19 감염증확산으로 비상근무중인 전주 완산경찰서를 방문해 큰 컵라면 100상자(1600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진성 스님은 2월 24일 전주 완산경찰서 (서장 최원석)를 방문해 연속되는 비상근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의경들의 간식으로 컵라면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진성 스님은 "최근 전북지역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는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의경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며 "조속히 코로나19 확진사태를 극복하고 도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